

# 진안 마을축제 새로운 모습으로

군, '마을과 도시, 삶을 나누다' 주제로 여름·가을한마당으로 진행

올해로 이흡 번째를 맞이하는 진안군마을축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텔바꿈한다.

그동안 여름휴가철에 마을내에서 소박한 마을잔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프로그램이 주민을 기반으로 하고 출향인, 1세촌 및 자매결연지 주민, 마을만들기에 관심 있는 자, 예비 귀농귀촌인 등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별 전통행사와 연계하여 연중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을과 도시, 삶을 나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는 5일 여름한마당으로 시작되는 이번 마을축제는 마을과 마을이 한자리에 모인 거점축제 형태로 여름한마당과 가을한마당으로 진행하게 되며, 그 외에 참여마을들은 소박한 마을잔치로 연중 마을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축제는 각 마을과 도시식구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1세촌 기념행사를 비롯한 마을별 주요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마을에서 진행되는 각종 농촌 체험행사가 한번으로 그치지 않



지난해 열린 진안마을축제

고 농산물 수확 시기 등에 맞추어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된다.

또한 진안시장에서 열리는 한여름 밤의 재미난 문화장터 '축제와 만나장'도 준비하여 공연과 함께 손수 농사지는 농산물부터 먹거리 판매, 수공예품, 벼룩시장, 놀이 등 진안읍내가 떠들썩하게 신나고 즐거운 축제의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신애숙 마을축제조직위원장은 '마을축제에 오셔서 더위도 식히고 옛 고향의 정취도 느끼면서 충분한 휴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마을축제 홈페이지 (<http://www.jinanmaeul.kr>) 063-433-5445

/진안=우태만기자

## 완주군, 우량종묘 마늘 공급 농가경쟁력 높여

지역 거점농가 대상 바이러스 감염에 안전한 주아 재배 생산 우량 씨마늘 분양

완주군이 우량종묘 마늘 공급으로 농가경쟁력 높이기에 나섰다.

군은 지역 내 거점농가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안전한 주아를 이용하여 생산한 우량 씨마늘을 분양하였다.

'주아'란 식물의 즐기에 생긴 부정아를 말한다.

영양번식작물인 마늘은 같은 종구를 계속 사용하면 누적 감염된 바이러스로 종자가 퇴화되어 수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종자 간신을 위해 주아재배가 권장된다.

그동안 주아재배는 마늘 종자 생산을 위해 3년간의 재배포장 관리가 번거롭고 까다로워 농가들이 알면서도 시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완주군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에 수확한 주아를 활용하여 통마늘을 생산하고 공급하여 농가가 1회 증식만으로 종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완주군 삼례읍의 한 농가는 '전년도에 분양받은 통마늘을 심어 올해 수



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우량 씨마늘 분양은 완주군의 민선6기 공약사업의 하나인 국내육성新品종 확대 생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농기공급을 통해 우량종묘 인정적 확보와 종묘 자급률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이종복기자

## 장수군청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아보리스트 자격증 취득

장수군청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아보리스트(수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다.

군에 따르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강릉시 임업기계훈련원에서 피해목 및 보호수의 수목전문관리자에 대한 전문 기술과 응용법목 및 가지치기 등의 전문임업기술을 실습하는 등 아보리스트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했다.

장수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2015년 산림청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시인 임업기능인 경진대회에서 산림청 및 각 지자체가 참석한 13팀 중 2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임업기계장비 사용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군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등록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읍면 피해목 및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3월부터 숲가꾸기 사업을 전개해 매각부산물 300톤으로 텁텁 및 우드칩을 생산해 관내 가로수 및 화단·장수중학교, 선서중학교에 각각 지원했으며 읍·면 주택피해목 48개소 6,521주를 제거 지원해왔다.

또한 2016년에는 하반기에는 산불수집목을 이용해 세외수입도 올리고 읍·면 60여가구로 대상으로 사랑의 맷길나누기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기자

## 로컬플러스

완주, 유해야생동물 포획봉사단 운영

완주군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활동에 나선다.

완주군은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포획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피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특히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복숭아와 옥수수,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하반기 포획봉사단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피해예방에 초점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예방사업 및 포획봉사단 활동만으로는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줄이기기에 한계가 있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기자

## 무주군, 8월 월례조회 개최

무주군은 1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8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회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등 1백 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팀워크에 대한 동기부여 영상(토끼와 거북이)과 재난예방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가치기업 '류스'의 류재현 대표로부터 "무주의 매력을 알고 더 아끼는 시간"이라는 주제의 소양교육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마을 만들기사업소와 재무과 무주읍이 최우수, 농업소득과 사회복지과 적상면이 우수, 건설교통과 보건행정과, 부암면이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수직의 조직문화를 수평으로 전환해 협차 산업체로 하나 된 무주'를 만들어 가지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진안군, 다양한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

진안군은

민선 6기 군정 비전인 '시립과 자연이 함께하는 진안'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골짜기 및 마을단위를 유기농업 단지로 특성화해 유기농업과 농촌관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을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2개 지구를 추가 선정해 총 25개 지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별 전략작목을 설정하고 유기농 관련 기술을 집중 투입해 인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고향학 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063-430-2951